

##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모형연구: 노후준비주체성,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와 성별간 다집단분석\*

임 지 숙                      조 효 진<sup>†</sup>                      조 윤 진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4년차 자료를 사용하여 신체적·심리적 건강이 중·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크게 늘어난 중·고령 시기의 삶의 만족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각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 모형의 검증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노후준비 주체성과 대인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각각의 경로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체적·심리적 건강은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구결과에서는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둘째,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사이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었다. 남성은 심리적 건강이 삶의 만족을 직접적으로도 설명하고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모두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 사이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분석에 포함 된 모든 변인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의하게 낮은 평균을 보여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삶의 질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함께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가 중요함이 확인되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대한 상담 및 정책적 접근에서 가지는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중·고령자, 삶의 만족, 노후준비, 종단모형연구, 매개효과

\* 이 논문은 2013년 제 4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음.

<sup>†</sup> 교신저자: 조효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포스코관 553-2호, Tel: 02-3277-4144, E-mail: jeofant@hanmail.net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현실화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세계의 평균기대수명은 69.91세로 1960년의 52.62세에 비하여 약 17.3년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라고 할 만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져 같은 기간 평균기대수명이 53세에서 80.87세로 세계평균기대수명보다 약 1.6배 증가하였다(세계은행, 2013.7.12). 또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고,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갈 전망이다.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헤럴드 경제, 2013. 1.4).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과거에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노년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길어진 노후시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삶의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인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수명의 연장은 특히 중·고령 시기,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시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의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되었다. 종단연구는 연구대상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횡단연구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중·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자료는 동일한 대상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성태

제, 시기자, 2006).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초점을 둔 기존의 삶의 만족도 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 제도와 문화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권혁창, 이은영, 201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간 삶의 만족 비교 연구들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에 정치·문화적 요인이 연관되어 있으며(Tella & MacCulloch, 2005)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도(Frey & Stulzer, 2000), 복지국가의 발전정도(Redeliff, 2001), 문화적 규범(Inglehart, 1990)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제도와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횡단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수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삶의 만족이 여성보다 높거나(이선미, 김경신, 2002; 정인숙, 2000), 여성의 삶의 만족이 더 높다는 연구(박기남, 2004)가 공존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위상실, 은퇴나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고용 및 혼인 지위의 상실, 경제적 하락, 육체적 건강 악화 등으로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Mirowsky & Ross, 1992) 및 연령은 성숙함의 증대를 의미하여 노년으로 갈수록 더 안전한 생활습관과 질서 잡힌 생활을 하게 되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고 안정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함께 있다(김진영, 2009). 결혼상태 변화의 경우에도, 횡단적 연구결과들과 달리 종단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결혼상태의 변화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무의탁 노인, 농촌 노인, 재택 노인, 은퇴 노인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배경특성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한 장점이 있지만 사례수가 작고 특정 대상에만 적용할 수 있어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이로 인하여 동일한 변인을 사용함에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정의, 2010).

다른 한편으로 늘어나는 기대여명에 비해 노후의 살길에 대해서는 막상 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이다(황명진, 2010). 더욱이 최근 들어 은퇴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고령자가 생애 주된 일 자리에서 그만둔 연령이 2006년 54세에서 2012년 53세로 은퇴연령이 낮아져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기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2). 또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권중돈, 2004).

이러한 현실 속에 노후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50세 이상 국민 10명중 7명(68.2%)은 노후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48.7%는 이미 생활비를 걱정한다(서울경제, 2012. 5. 29.). 노인에게 경제적 능력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건강 관리, 심리적 안정감, 여가 생활 등의 생활 전반에 관련이 있어서(김성숙, 박운아, 1992; 신은식, 2002),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하지만,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환경 변인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Johnson & Krueger, 2006; 정명숙, 2007), 경제활동상태는 중고령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소득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은, 전혜정, 2009). 또한, 노후준비라는 것은 노후 생활 전 영역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재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영역의 노후준비도 매우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11). 인간은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부모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자녀와의 지원관계가 일방적인 수혜관계가 아닌 지원을 교환하는 관계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정순돌, 문진영, 김성원, 2010). 또한 노화로 인해 환경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목표의 우선순위를 조절함으로써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유경, 민경환, 2003). 즉,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때 밀접한 대인관계 역시 중요한 변인이다. 노년기가 되면서 가까운 친구와 친지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새로운 관계는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유지하려 한다(Carstensen, Graff, Levenson, & Gottman, 1996; Carstensen, Gottman, & Levenson, 1995).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

포함되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스스로 축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궁극적으로 정서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인들의 동기를 만족시킴으로써 노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경, 민경환, 2003). 즉,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대인관계가 축소되지만, 질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제외하고, 크게 건강상태, 생산적 활동, 경제적 상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중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학계의 주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아 왔다(김교성, 유재남,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패널 데이터(50세 이상, 6616명)를 사용하여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중·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종단적인 구조 모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제적 독립 여부’, ‘노후 대책에 대한 주된 역할의 인지’, ‘노후생활 준비여부’를 ‘노후준비 주체성’이라는 새로운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노후준비 주체성’과 ‘대인관계(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중·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대한 논의에서 성차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남·녀 간의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중·고령 시기의 삶의 만족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권중돈, 조주연, 2000; 정주원, 송현주, 2012 재인용). 삶의 만족은 생활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대표적인 측정도로 활용되고 있다(이정의, 2010).

최근에 이러한 노년기의 주관적 만족과 심리적 성취감을 의미하는 삶의 만족과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노력을 말하는 노후준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준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권중돈, 조주연, 2000; 박기남, 2004; 박창제, 2008)와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 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임경자, 2002),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최은정, 2004; 권은비, 이정화, 2011; 최혜련, 2011). 즉, 노인들이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노후를 보내는 원동력은 신체적,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김주성, 최수일, 2010).

## 신체적·심리적 건강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과정으로 신체적 기능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해 신체적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 신체적 건강은 일상생활 능력과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건강의 의미는 다양하고 복합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Campbell(1976)에 따르면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만족도가 높고(백은영, 2009), 주관적 건강인식 및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미령, 2012; 권중돈, 조주연, 2000;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특히 노인에게 있어 장애와 질병의 경험과 같은 신체 기능의 취약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임지영,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박순미 등(2009)에서 연령, 교육,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 교육은 시간의 흐름에 안정적인 변인으로 건강상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기능과 건강지각은 독거,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서경현, 김영숙, 2003).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 저하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으로 경험되어 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노년기 수동성의 증가와 함께 노년기에 흔한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신창환, 2010) 노년기 신체적 건강 상태는 다양한 영역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오현숙(2003)의 연

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경로당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당 참여가 많은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이 사회적 활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신체적 건강은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도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박순미 외, 2009), 삶의 여러 영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신체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 또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검증되었다(유재남, 2011). 노년기는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마무리 단계인 노년기에 자신이 지나온 인생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아 통합감’이 생기며, 반면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으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하게 될 때 ‘절망감’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지나온 인생에 대한 불만이 쌓여 지나온 삶이나 현재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 또는 타인을 원망하며 괴로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윤진, 1993; 노승욱, 1996). 실제로 60세 이상 은퇴 남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정신과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우울하다고 인지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임지영, 2009). 유재남(2011)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노년기 우울은 심각한 정신 질환의 하나로 노인집단의 경우 우울증이 심장병, 치매, 불안장애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유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노년기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실천적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노인의 우울정도는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정경희, 1997),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노후준비 주체성

주체성은 주체가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판단이나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 주체성(agency)이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이면서 환경적인 사건이나 자원에 대하여 통제를 발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9). 자원은 그 자체로의 의미뿐 아니라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행위나 선택, 자유의 범위가 넓어질 때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Sen, 1999), 행위의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개인이 가진 자원과 행동의 결과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노혜진, 2011). 주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아 통제감(sense of mastery, sense of control)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적극적 자세를 의미한다(Zarit, Pearlin, & Schaie, 2003). 은퇴, 수입의 감소, 신체적 건강의 쇠퇴, 주변인의 사망 등과 같이 일상의 상실이 큰 노년기에 자아 통제감은 삶의 질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김

미혜, 이금룡, 정순돌, 2000), 스트레스 완충제로서의 역할과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Haley, Small, & Mortimer, 2002; Rowe & Kahn, 1987). 노후준비를 개인의 성격 특성인 내외 통제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 내부에 통제와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노후대책 마련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Kenna & Nickils, 1988). 또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믿거나 자신을 스스로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자아통합감(ego integrity)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Erikson, 1980; Hamachek, 1990).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은퇴 혹은 노후라는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해 어디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즉 자아 내부 혹은 자아 외부(사회, 타인)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개발된 내외통제성의 개념을 노후라는 구체적인 범주로 제한하여 심리적 요인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외통제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숙, 박운아, 1992).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노후생활 준비여부, 경제적 독립여부와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노후 대책에 대한 책임 인지도 여부를 중·노년기가 자신의 노후에 대해 통제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노후준비 주체성’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실제 노후생활 준비여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노후준비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주성, 최수일, 2010), 중년기에 접어든 성인들은 신체적 노후와 경제적 노후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유진, 2005). 하지만 실제 노후생활 준비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 녀 고령자 집단에서 노후생활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4%, 16.1%에 그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준비도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령, 2011). 반면, 노후 준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안현선, 김효민, 안진경, 김양희, 2009; 김미령, 2011), 실질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 여부가 노년기에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둘째로, 경제적 독립여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경제적 측면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질의 감소, 의료 혜택의 부족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제약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삶의 질의 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이경욱, 허소영, 2008). 노인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활동상태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체적 건강 여부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ell & Dupuis, 1996).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나 사회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노인 본인의 근로수입이나 재산소득 등을 활용하여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타인과 사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하였다(이선형, 이연숙, 1997; 권중돈, 조주

연, 2000).

셋째로, 노후 대책에 대한 책임인지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요인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생활은 일차적으로 개인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김성숙, 박운아, 1992).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문을, 2002; 계선자, 김정희, 1997; 박창재, 2011; 송창국, 2008; 유병우, 2001.; 이행숙, 1997). 이는 고령화될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조용수, 김기승, 2007). 또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수준이 OECD 평균인 20.7%에 비하여 5.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OECD, 2009) 개인이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현저히 높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노후준비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노후준비의 경제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연금 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하춘광, 2007)에서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노인들은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이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나은 일반노인들은 주관적 경제수준, 주요 수입원, 교육수준 등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이 더 컸다. 이는 경제적 준비가 노후준비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제적 준비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함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주체성’이 중·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 대인관계 만족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는 노인에게 안녕감을 부여하며(Rowe & Kahn, 1998),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 여부가 달려 있다(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2009). 이에 따라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정의, 2010; 강선경, 박희경, 2008; 박현순, 나동석; 2008; 윤현숙, 유희정, 2006; Gray & Calsyn, 2006)이 이뤄져왔다. 미시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직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 관계의 폭'이라는 사실을 밝혔다(이주형 역, 2004; 정순돌, 문진영, 김성원, 2010 재인용). 또한 은퇴여부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수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황명진, 2010). 여성노인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박영주(2001)의 연구는 노인들의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적 지지가 중요하며, 또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이나 고독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원경, 2001; 이호성, 2005).

특히 한국 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강유진, 2003; 강인, 2003; 백지은, 최혜경, 2005; 성혜영, 유정현, 2002; 윤현숙, 유희정, 2006, 김미령, 2012)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uquereau, Fernandez & Mullet, 1999).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았고(김지연, 2002) 미국의 노인 종단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성인 자녀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노부모는 우울이 증가하고, 행복감이 감소하며,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은, Marks, 2006). 또 가족이나 친지 등 외부와 거의 관계를 맺지 않는 노인들 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등 외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삶의 만족도나 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범, 박준식, 2004). 타인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 고립형의 관계망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가족이나 친족, 친구 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밝혔다(박경숙, 2000). Bookwala와 Franks(200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나 본인의 부정적 건강상태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는 신체 및 인지 장애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매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윤현숙, 허소영, 2007). 사회적 유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호성(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와 친구와의 유대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친구관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윤현숙, 허소영, 2007). 또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김지경, 송현주,



2009; 백은영, 2009)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김지경, 손현주, 2009)가 은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 일관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성차를 보이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여성노인에게만 유의하며 친구와의 관계는 남녀노인 모두에게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윤현숙, 허소영, 2007).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노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대인관계 영역을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중에서 3차년도(2009년)와 4차년도(2011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4차년도에 이르는 자료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후준비주체성’과 관련된 문항인 경제적 준비여부, 타인의 도움여부, 독립적인 경제력 여부와 관련된 문항이 수집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자료와 4차년도 자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두 시기 모두에서 응답한 대상자들 중 4차년도를

기준으로 49세 이하의 연령을 제외한 50세 이상의 총 6,616명의 자료이다. 남자는 2,696명(40.7%), 여자는 3,920명(59.3%)이었고, 연령은 50세부터 107세였으며, 평균연령은 68.08세(SD=9.1)였다. 학력은 무학 1,106명(16.7%), 초등학교 졸업 2,361명(35.7%), 중학교 졸업 1,241명(18.8%), 고등학교 졸업 1,384명(20.9%),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이 104명(1.6%), 4년제 이상 대학교인 사람이 331명(5.0%), 대학원 졸업 66명(1.0%)이었으며, 무응답이 23명(3.0%)이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 응답이 4,786명(72.3%), 사별 1,578명(23.9%), 이혼 196명(3.0%), 미혼 54명(0.8%)이었다. 이 중에서 은퇴한 경우는 3,304명(49.9%), 은퇴하지 않은 경우가 248명(3.7%), 은퇴여부에 대한 무응답이 3,064명(46.3%)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변인은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며,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노후준비주체성

노후준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설문문항 중에서 ‘귀하는 노후 대책 마련에 있어 누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본인=1, 본인 이외 타인=0)’,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준비하고 있다=1, 준비하고 있지 않다=0)’, ‘귀하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계십니까?(가지고 있다=1, 가지고 있지 않다=0)’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노후준비주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 대인관계 만족

대인관계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친구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귀하는 현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대인관계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1점=매우 불만족, 5점=매우 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 삶의 만족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변수는 주거환경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일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생활전반 만족도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를 묻는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SPSS 19.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1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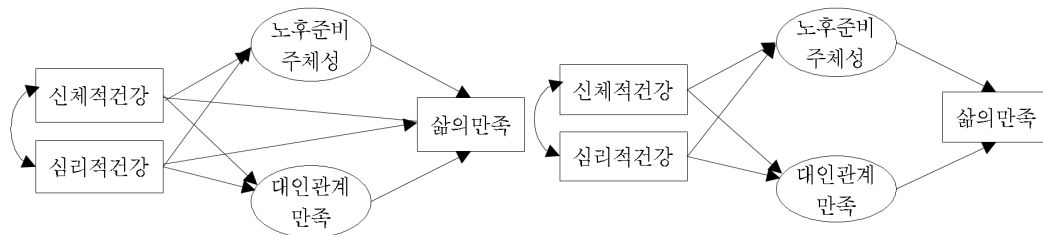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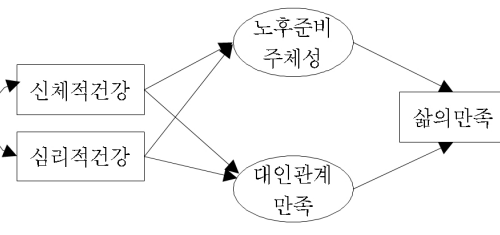


그림 2.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

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선정된 모형을 근거로 남, 여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시행하였고, 측정동일성 및 구조동일성 검증은  $\chi^2$  차이검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변인들인 대인관계만족, 노후준비주체성,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으며,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인 상관관계 및 성별차이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는 남녀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변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표 2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대인관계만족\_부부와 노후준비주체성\_주도성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 비교하기 위해 두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최종모형의 경우, 검증결과  $\chi^2(df=21, N=6,616)=461.880$ 이었고 ( $p<.001$ ), CFI=.956, TLI=.905, RMSEA=.056이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총 N = 6,616, 남 N = 2,696, 여 N = 3,920)

	남자		여자		전체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노후생활준비	0.39	0.49	0.24	0.43	0.29	0.46	-12.13*	
노후준비주체성	경제적독립	0.5	0.5	0.23	0.42	0.34	0.47	-22.44*
	노후대책주도성	0.72	0.52	0.41	0.54	0.54	0.56	-21.97*
대인관계만족	친구관계	3.54	0.79	3.43	0.84	3.47	0.82	-4.99*
	부부관계	3.38	1.23	2.23	1.83	2.69	1.71	-26.81*
	가족관계	3.68	0.67	3.59	0.79	3.62	0.75	-4.51*
신체적건강	2.99	1.06	2.61	1.00	2.76	1.04	-14.19*	
심리적건강	3.53	0.92	3.3	0.96	3.39	0.95	-9.32*	
삶의만족	3.3	0.72	3.2	0.71	3.24	0.71	-7.56*	

\*  $P<.001$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총 N = 6,616, 남 N = 2,696, 여 N = 3,920)

변인	1	2	3	4	5	6	7	8	9
1. 노후준비주체성_노후생활비준비	1								
2. 노후준비주체성_경제적 독립	.54** (.48**)	1							
3. 노후준비주체성_노후대책주도성	.23** (.14**)	.33** (.22**)	1						
4. 대인관계만족_친구	.20** (.17**)	.25** (.16**)	.13** (.03*)	1					
5. 대인관계만족_부부	.17** (.16**)	.19** (.10**)	.11** (-.02)	.30** (.18**)	1				
6. 대인관계만족_가족	.19** (.14**)	.23** (.11**)	.10** (0.03)	.52** (.40**)	.50** (.30**)	1			
7. 신체적 건강	.27** (.25**)	.30** (.24**)	.18** (.05**)	.30** (.22**)	.13** (.25**)	.25** (.23**)	1		
8. 심리적 건강	.21** (.17**)	.24** (.15**)	.13** (0.03)	.33** (.23**)	.21** (.22**)	.35** (.28**)	.55** (.52**)	1	
9. 삶의 만족	.26** (.22**)	.30** (.16**)	.13** (.05**)	.25** (.21**)	.24** (.25**)	.24** (.23**)	.28** (.25**)	.26** (.23**)	1

주. ( )밖의 숫자는 남자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자의 값임. \* P<0.05 \*\* P<.001

있고,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chi^2(df=23, N=6,616)=493.977$ , CFI=.907, TLI=.953, RMSEA=.056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TLI, CFI가 .90이상(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이고, RMSEA가 .60이하(Hu & Bentler, 1999)이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이 둘 다 적합

한 모형으로 볼 수 있었으나, 두 모형은 내재된 모형이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chi^2$  차이검증을 통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얻은 모수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 노후준비주체성, 대인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6,616)

모형	$\chi^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연구모형	461.880	21	.905	.956	.056(.052~.061)
경쟁모형	493.977	23	.907	.953	.056(.051~.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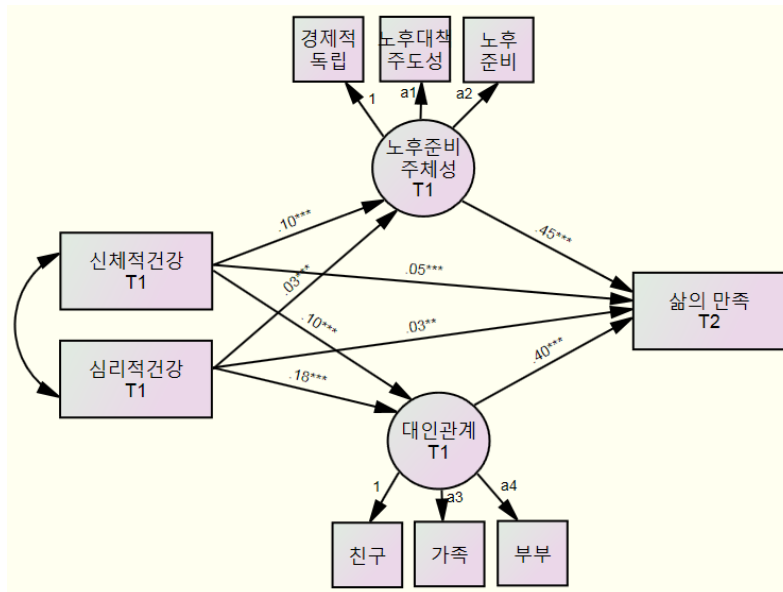


그림 3.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노후준비주체성, 대인관계만족 및 삶의 만족의 관계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임. T1은 2009년 측정치, T2는 2011년의 측정치임.  
 \*\*\* $p < .001$ , \*\* $p < .05$

표 4.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신체적 건강 → 노후준비 주체성	0.101(***)	0.005	0.346
심리적 건강 → 노후준비 주체성	0.029(***)	0.005	0.091
신체적 건강 → 대인관계만족	0.099(***)	0.008	0.212
심리적 건강 → 대인관계만족	0.176(***)	0.010	0.345
노후준비 주체성 → 삶의 만족	0.451(***)	0.037	0.194
대인관계만족 → 삶의 만족	0.403(***)	0.028	0.277
신체적 건강 → 삶의 만족	0.045(***)	0.011	0.066
심리적 건강 → 삶의 만족	0.028(**)	0.012	0.037

\*\*\*  $P < .001$ , \*\*  $P < .005$

관계만족,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

는데 있어서 노후준비 주체성 및 대인관계만족의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절차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 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먼저 남녀집단에서 기저모형이 적합한지를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두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끝으로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들이 동일한지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남녀 집단의 기저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집단에 대해 실시했던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즉, 남녀 집단 각각에서도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chi^2$  차이 검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 더 간명하고 좋은 모형을 알 수 있었다(남자집단  $\Delta\chi^2(2, 2696)=30.247, p<.01$ , 여자집단  $\Delta\chi^2(2, 3920)=11.720, p<.01$ ).

###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측정모형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각 집단에 있어 노후준비주체성, 대인관계만족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각 측정변인들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 척도 또는 척도 간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남녀집단에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의  $\chi^2$  값을 비교하였다.

표 6에서 집단별로 각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a1~a6)을 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 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나,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완전측정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완전측정동일성이 기각되었으므로, 부분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홍세희, 2012).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완전측정동일성검증을 위해 제약하였던 요인계수들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chi^2$  값과 적합도를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 그림 3에서 보이는 a2과 a4의 제약을 풀었을 때  $\chi^2$  값의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부분측정동일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Delta\chi^2(2, 2696)=0.668, p<.01, TLI=.906, CFI=$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집단별 적합도 지수 (전체 N = 6,616, 남 N = 2,696, 여 N = 3,920)

성별	모형	$\chi^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남자	연구모형	240.237	21	.902	.954	.062(.055~.069)
	경쟁모형	270.484	23	.898	.948	.063(.057~.070)
여자	연구모형	242.549	21	.901	.954	.052(.046~.058)
	경쟁모형	254.269	23	.906	.952	.051(.045~.056)

표 6.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남 N = 2,696, 여 N = 3,920)

	$\chi^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기저모형	482.791	42	.901	.954	.040(.037~.043)
완전측정동일성	504.310	46	.906	.952	.039(.036~.042)
부분측정동일성	483.459	44	.906	.954	.039(.036~.042)
완전구조동일성	535.997	52	.912	.949	.038(.035~.040)
부분구조동일성	488.968	47	.911	.954	.038(.035~.041)

.954, RMSEA=.039). 각 요인별로 1로 제약한 계수를 제외하고 1개 이상 동일화제약이 성립하면 부분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홍세희, 2012), 부분측정 동일성 성립을 상정하였다.

#### 구조동일성 검증

부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변인들간의 인과 경로에서 성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결과와 같이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완전구조동일성모형의 경우,  $\chi^2$ 값이 535.997, 자유도가 52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부분측정 동일성의  $\chi^2$ 값이 483.459, 자유도가 46으로  $\chi^2$ 의 차이가 52.538, 자유도 차이는 8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동일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52.538, df=8$ ). 따라서 완전구조동일성가정을 기각하고,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로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남녀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동일성 제약을 하나씩 가하면서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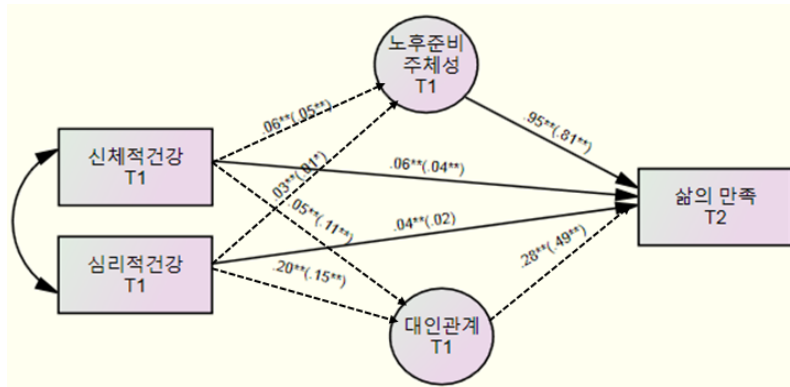


그림 4. 최종구조모형의 집단별 구조계수 추정치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임. 실선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추정치, 점선은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추정치임. ( )안의 숫자는 여자의 값, ( )밖의 숫자는 남자의 값임. T1은 2009년 측정치, T2는 2011년의 측정치임.

\*\*  $p < .001$ , \*  $p < .05$

표 7. 최종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남자			여자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신체적 건강 → 노후준비주체성	0.058(***)	0.006	0.314	0.046(***)	0.004	0.318
심리적 건강 → 노후준비주체성	0.028(***)	0.006	0.133	0.009(**)	0.003	0.061
신체적 건강 → 대인관계만족	0.054(***)	0.012	0.117	0.105(***)	0.011	0.23
심리적 건강 → 대인관계만족	0.195(***)	0.014	0.371	0.152(***)	0.012	0.319
노후준비주체성 → 삶의 만족	0.95(***)	0.099	0.262	0.808(***)	0.11	0.165
대인관계만족 → 삶의 만족	0.278(***)	0.036	0.19	0.489(***)	0.041	0.318
신체적건강 → 삶의 만족	0.062(***)	0.016	0.092	0.036(**)	0.014	0.052
심리적건강 → 삶의 만족	0.041(**)	0.019	0.053	0.024	0.015	0.032

\*\*\*  $p < .001$ , \*\*  $p < .05$

결과 일부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부분적으로 구조동일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선정된 모형에서의 성별차이는 그림 4에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의 값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즉, 신체적 건강에서 노후준비주체성, 신체적 건강에서 대인관계로, 심리적 건강에서 노후준비주체성, 심리적 건강에서 대인관계만족, 대인관계만족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준비주체성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경로, 신체적 건강에서 삶의 만족, 심리적 건강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집단차는 유의한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 각각에 대한 추정치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심리적 건강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이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해석을 막아주며, 매개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준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MacKinnon et al., 2002). 매개효과를 집단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신체적 건강에서 노후준비주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신체적 건강에서 대인관계만족을 통해서도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심리적 건강의 경우에도, 노후준비주체성을 통한 간접경로와 대인관계만족을 통한 간접경로 모두에서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건강에서 노후



표 8. 최종구조모형의 간접효과

독립변인	경로	매개변인	종속변인	sobel test(z)	
				남	여
신체적 건강	→	노후준비주체성	→	삶의 만족	6.81(***) 6.19(***)
신체적 건강	→	대인관계만족	→	삶의 만족	3.89(***) 7.45(***)
심리적 건강	→	노후준비주체성	→	삶의 만족	4.20(***) 2.78(**)
심리적 건강	→	대인관계만족	→	삶의 만족	6.75(***) 8.68(***)

\*\*  $p < .05$ , \*\*\*  $p < .001$

준비주체성, 대인관계만족을 각각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 심리적 건강에서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만족을 각각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녀 각각의 집단에서 모든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 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론에 기반한 구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의 3차(2009년)와 4차(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3차 년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노후준비주체성(경제적 독립, 노후대책의 주된 역할, 노후생활비 준비)과 대인관계만족(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지를 종단적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은 우리나

라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제시한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만족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기만하는 수혜자에서 잠재력과 문제해결 능력 및 강점을 가진 존재로 보려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강우경, 박승희, 2011)를 고려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도,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로서의 주도성, 그리고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노후준비주체성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도 노후준비주체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삶의 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에 대비한 삶을 준비할 때, 경제적 준비와 함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문을, 2002; 박창제, 2011; 송창국, 2008; 이행숙, 1997).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고령자들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률(55~79세 52.3%)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12) 이러한 인식을 확장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친구, 가족, 부부 간의 대인관계가 모두 삶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이를 통해 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지만(유경, 민경환, 2003) 기존의 대인관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친구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지 않다가(윤현숙, 허소영, 2007) 자녀와의 관계(김지경, 손현주, 2009; 백소영, 2009)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김지경, 손현주, 2009)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이 2002년 56.7%에서 2010년 62.8%로 증가하는 추세로(통계청, 2010) 대가족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비하여 중·고령 시기에 관계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대인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과 개인적인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하고 자녀의 독립에 따라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많다(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2013).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부부,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잘 파악하며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회적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들도 이러한 대인관계 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관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는데, 그것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한국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직접적 경로 역시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신체적, 심리적 건강 문제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altes & Smith, 2003; 고민석, 서인균, 2011; 김수봉, 2010;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2010; 이중섭, 2010; 김철수, 유성호, 2009).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규칙적 운동, 우울감 등 건강 관련 변인들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이정의, 2010), 노인의 주관적 신체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심리적 어려움이 적을수록, 우울증이 없는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진영, 2009; 김미령, 2012; 권중돈, 조주연, 2000; 박순미 외, 2009; 허성호, 김종대, 2011)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 50세 이후 중·고령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성차가 있었다. 남성은 심리적 건강이 삶의 만족을 직접적으로도 설명하고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사이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노후준비주체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특히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은 연구모형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을 보여주는 경로 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대부분의 여성노인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남성노인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지선, 2008; 정순달,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한경혜, 홍진국,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만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현숙, 허소영, 2007). 관계의 중요성은 여성의 경우 생존율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yne 등(2001)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의 생존율을 높이고 부정적 부부관계는 여성의 사망률을 높였다는 결과(Umberson & Williams, 2005; 윤현숙, 허소영, 2007 재인용)도 있다. 또한 성인 초·중반기에는 남성이 더 친구가 많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 비슷해지고, 노년기를 지나면서는 여성이 더 큰 친구관계망을 갖고(이지현, 한경혜, 2012), 친밀하게 의논할 친구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낮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데 반하여, 남성에게서는 가까운 친구의 유무가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ntonucci, Lansford, & Akiyama, 2001). 또 친구의 지지는 배우자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Walen & Lachman, 2000).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들은 노년기에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에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노인

계층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대인관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낮아지는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위이다(OECD, 2009).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대인관계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위한 특화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된다고 하였다. 부부, 가족, 친구와 같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만족을 통해서 중·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쉽게 느끼게 되는 우울감,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을 상당부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면 유형, 무형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여성의 경우에 모든 변인에서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만족이 높고(김미령, 2011; 허성호, 김종대, 2011), 여성노인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성노인보다 열악하다는 연구결과(박기남, 2004)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여자 노인들이 남자노인보다 지각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는 많고 행복의 정도는 낮다(윤현희, 1994; 이신숙, 이경주, 2002; 유정현, 성혜영, 2009)는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여성고령자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하게 나타나(김미령, 2012)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집단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주로 횡단적인 방법으로 특정집단에 국한해서 연구되었던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통한 종단연구로 검증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만족에 대한 인과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중·고령 시기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주체성(agency)을 가지고 준비했는가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노후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그 중요성은 검증되었으나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김지경, 손현주, 2009; 백은영, 2009; 윤현숙, 허소영, 2007)를 보였던 대인관계 만족에 대한 부분도 부부, 자녀, 친구와의 대인관계 모두가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나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어 성차가 있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척도가 제한적이었다. 대표성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된 안정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범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여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변인들을 선별하고 가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척도의 사용으로 보다 풍부하고 정교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단적인 구조모형을 제시하고자 인과적인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 노후준비의 주체성, 대인관계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양방향적 영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경, 박희경 (2008). 친구망과 심리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17-139.
- 강우경, 박승희 (2011).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이 세대 간 자원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133-154.
- 강유진 (2003).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31-146.
-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대·40대·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4), 159-174.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계선자, 김정희 (1997). 노인이 선호하는 부양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85-89.
- 고민석, 서인균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한보건연구*, 37(1), 1-14.
- 권은비, 이정화 (2011). 은퇴한 남성의 생활만

-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은퇴관련변인과 부부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73-92.
-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권혁창, 이은영 (2012).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2), 61-85.
- 김교성, 유재남 (2012).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소득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63-187.
-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8, 325-352.
- 김문을 (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 김미령 (2011). 중고령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제3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73-396.
- 김미령 (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32(1), 145-161.
- 김성숙, 박운아 (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 김수봉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제2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33-146.
- 김영범, 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한국노년학, 24(1), 169-185.
- 김원경 (2001).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 증간의 관계: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지지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49-66.
-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2010).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0(2), 471-484.
- 김주성, 최수일 (2010).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상담학회지, 39(1), 195-243.
- 김지경, 송현주 (2009). 조기 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7(3), 31-43.
- 김지선 (2008). 연리지로 그려지는 노년기 배우자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2002). 자녀와의 관계와 성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87-113.
- 김철수, 유성호 (2009).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51-73.
- 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임지영 (2009). 고령은퇴 남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53-280.
- 노승욱 (1996). 여성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과의 관계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47-58.
- 노혜진 (2011). 여성 행위주체성(agency)에 관한 생애단계별 고찰-빈곤개념의 확장. 여성연구, 82, 267-306.

- 박경숙 (2000).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4), 621-648.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1-24.
- 박영주 (2001). 여성노인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노년학연구*, 10, 75-95.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현순, 나동석 (2008). 취업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연구*, 40, 147-172.
- 백은영 (2009).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노인복지연구*, 44, 345-371.
- 백지은, 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서경현, 김영숙 (2003).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지원과 정신건강에 관한 탐색. *노인복지연구*, 21, 7-26.
- 서울경제 2012. 5. 29. 50세 이상 68%노후대비 안돼...절반은 벌써 생활비 걱정.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75-93.
- 세계은행. 세계평균수명, 2013. 7. 12.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 송지은, Marks, N. F. (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종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송창국 (2008).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고찰-교단은급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2, 123-149.
- 신은식 (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거주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창환 (2010).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2), 453-469.
- 안현선, 김효민, 안진경, 김양희 (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 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3(3), 137-155.
- 오현숙 (2003). 경로당 이용 만족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지*, 24, 197-232.
- 유 경, 민경환 (2003). 노년기 정서 경험과 적응의 특성: 정서최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81-97.
- 유 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9(2), 729-742.
- 유병우 (2001).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과 노후준비활동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유재남 (2011).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제3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35-369.
- 유정현, 성혜영 (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 29(2), 717-728.
- 윤지은, 전해정 (2009). 중고령자이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743-759.
- 윤진 (1994). 노인의 사회 심리적 욕구체계, 21세기와 한국간호, *대한간호협회*, 129-148.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윤현숙, 허소영 (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3), 649-666.
- 윤현희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1), 17-32.
- 이경옥·허소영 (2008). 포커스집단을 통한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개념 연구. *한국노년학*, 28(2), 269-290.
- 이선미, 김경신 (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이선형, 이연숙 (1997). 노인 단독 가구의 가계 재정 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 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1-20.
- 이정의 (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3), 709-726.
- 이주형 역 (2004). 20대가 먼저 읽고 실천해야 할 은퇴혁명. Mitch Anthony. 서울: 청년정신.
- 이중섭 (2010). 장애인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 187-212.
- 이지현, 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70-205.
- 이행숙 (1997). 主婦의 老後生活準備意識·行動 및 經濟 對策에 關한 研究: 서울시에 거주하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07-124.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123-148.
- 임경자 (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 정경희(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43-52.
- 정명숙 (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249-273.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정순돌, 문진영, 김성원 (2010).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30(4), 1145-1161.
- 정인숙 (2000).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성격특징의 관계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22, 297-312.
- 정주원, 송현주 (2012). 60대 중고령자들의 주관적 노후인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33-356.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

- 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30(2), 535-550.
- 조용수, 김기승 (2007).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 사회보장연구, 23(3), 101-124.
- 최은정 (2004). 노인환자의 치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련 (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 하춘광 (2007). 공적연금 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23(3), 1-21.
- 한경혜, 홍진국 (2000).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허성호, 김종대 (2011).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분석. 한국노년학회, 31(2), 401-418.
- 헤럴드경제 2013. 1. 4. 점점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령화지수 증가폭 지난해 사상 최대.
- 황명진 (2010). 은퇴여부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연구. 2010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55-293.
-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워크샵 교재. S & M 리서치 그룹.
- Antonucci, T. C., Lansford, J. E., Akiyama, H. (2001).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on Well-Being of Older Adul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2), 68-75.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New York: Cambridge Uni. Press.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pp. 1-60). Greenwich, CT: JAI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 of wellbeing. *American Journal Psychologist*, 3(1), 117.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ookwala, J. & Franks, M. (2005). Moderation role of marital quality in older adult's depressed affect: beyond the main-effect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60B(6), 338-341.
- Carstensen, L. L.,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 140-149.
- Carstensen, L. L., Graff, J., Levenson, R. W., & Gottman, J. M. (1996). *Affect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C. Magai & H. McFadden(Eds.), *Handbook of emoti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pp.227-24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oyne, J. C., Rohrbaugh, M. J., Shoham, V., Sonnega, J. S., Nicklas, J. M., & Cranford, J. A. (2001). Prognostic importance of marital quality for survival of congestive heart failure. *The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88, 526-529.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Are i s s u e. New York: Norton.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October), 918-938.
- Fouquereau, E., Frenandez, A., & Mullet, E. (1999). The Retirement Satisfaction Inventory: Factor structure in a French sampl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5, 49-56.
- Gray, D. & Calsyn, R. J. (2006). The relationship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to life satisfaction: Age effec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3), 214-219.
- Hamachek, D. (1990). Evaluating self-concept and ego status in Erikson's last three psychosocial stag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677-68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Inglehart, R. (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ng, Y., Haley, W. E., Small, B. J., & Mortimer, J. A. (2002). The role of mastery and social resource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disability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42(6), 807-813.
- Johnson, W., &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680-691.
- Mannell, R. C.,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 (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pp. 59-64). San Diego: Academic Press.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 McKenna, J. S. and Sharon Y. Nickils (1988), Planning for retirement security: What helps or hinders women in the middle yea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2), 153-164.
- Mirowsky J. & Ross, C. E.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3), 187-205.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 Radcliff, B.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Rowe, J. W. & Kahn, R.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149.
- Sen, A. K.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ella, R. D., & VacCullochm, R. (2005). Partisan social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2), 367-393.
- Umberson, D. & Williams, K. (2005). Marital quality, health, and aging gender equity? *Journal of Gerontology*, 60B(special issue), 109-112.
- Walen, H. R., Lachman, M. E. (2000). Social support and strain from partner, family, and friends: Costs and benefits for men and women in adulthood.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7(1), 5-30.
- Zarit, S. H., Pearlin, L., & Schaie, K. W. (Eds.) (2003). *Personal control in social and life course context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1차원고접수 : 2013. 09. 28.  
수정원고접수 : 2014. 01. 23.  
최종게재결정 : 2014. 01. 28.

**A Longitudinal Model Study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over 50 years and over)  
- Focusing on the mediate effects of the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ulti-group analysis**

Jeesuk Lim

Hyojin Cho

Yoonjin Cho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the 3<sup>rd</sup> and 4<sup>th</sup>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for verifying the longitudin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50 years and over). Through this, we were willing to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time flow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 and older adults with prolonged average life expectancy. We examined how two factors of successful aging-physical & psychological health-explai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financial independency, major role of planning for old age, living expenses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s(friend, family, marital relationships) from preceding research. We also identified gender differences in each path.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physical & psychological healt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And the study result supported partial meditating model explaining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For men, psychological health directly explains life satisfaction and it was possible to explain with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ut for women, psycholog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s not directly related, but just meditating effects of preparation agency and interpersonal are applied. Third, women participants showed lower means all of the factors as compared with men; it means poor quality of life in term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financial aspects. This resul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reparation agency, including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for women,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hip is more emphasized.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in counseling and policy approaches for life satisfaction of older life.

*Key words : middle and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planning for old age, longitudinal model, mediating effect*